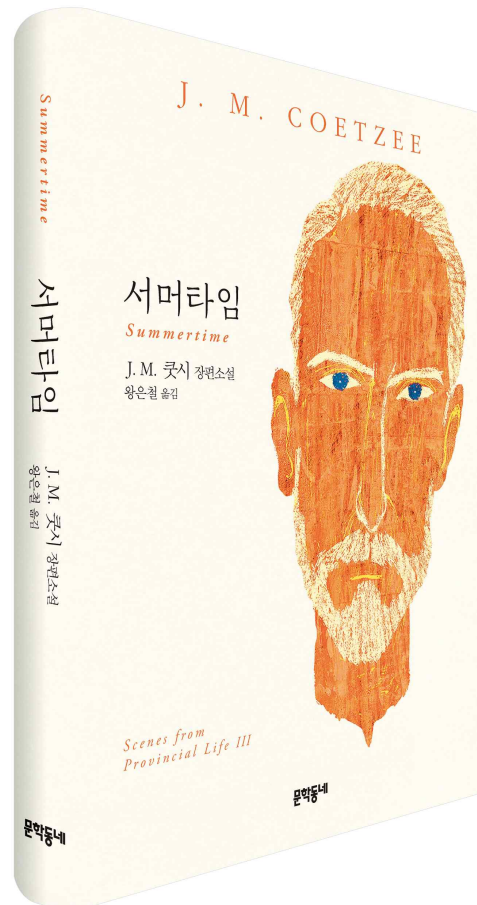


# 서머타임

Summertime

J. M. 콧시 장편소설 | 왕은철 옮김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 삶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모든 한계와 형식을 무너뜨린  
파격 그 자체의 압도적인 자전소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존 콧시 자전소설 3부작

콧시 사후 남겨진 메모와 관계들을 통해 전기작가 빈센트가  
그의 삶을 추적한다. 기억과 기록에서 건져올려져  
완성되는 입체적 초상, 시간에 맞서는 거부 의 몸짓,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는다는 의미에 대하여.

## “이 책을 읽은 많은 비평가들이 쿷시를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영어권 작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_뉴욕 타임스 북 리뷰

진실을 향해 가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마저 가혹할 수 있는 치열함과 성실성, 그리고 윤리성이 그를 독보적인 작가로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실과 진리의 구도자다. 정말이지 흔치 않은 작가다.

\_윌킨스의 말 중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부커상 2회 수상에 빛나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영어권 작가’이자 ‘존재의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작가’ J. M. 쿷시의 자전소설이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J. M. 쿷시 자전소설 3부작은 ‘우리 시대 가장 과묵한 작가’로 불릴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기로 유명한 쿷시의 삶과 사랑, 예술, 철학을 잔인할 만큼 솔직한 서술로 풀어낸 회고록이자 소설이다. 이 3부작을 통해 작가 존 쿷시의 삶은 또 한 편의 예술로 재탄생한다.

3부작 중 마지막인 『서머타임』은 그중에서도 획기적이고 파격적이다. 쿷시가 작가로서 발을 내딛기 시작하던 1970년대를 다룬 이 작품은 2009년 맨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쿷시가 사망했다는 가정하에 전기작가 빈센트가 쿷시의 삶을 추적해나간다. 쿷시가 적은 메모와 그가 생전에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연인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그 모든 기억과 기록을 통해 쿷시의 입체적 초상이 완성된다. 그가 처한 심리적, 물리적 현실은 물론 그의 은밀한 사생활, 사랑과 예술에 대한 그의 철학, 정치관이 거침없이 폭로된다. 모든 한계와 형식을 무너뜨리고 개인과 예술, 작가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치밀하게 파헤치며 타고난 이야기꾼이자 진실과 진리의 구도자로서 쿷시의 진가를 확실히 보여준다.

## 소설로, 오직 소설로만 말하는 작가, 존 쿷시

2003년 10월, 스웨덴 한림원은 존 쿷시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한다. 수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그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 명성과 관심에 비해 언론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작가였고, 일상에서도 과묵함으로 무장한 비밀스런 사람이었다. 부커상을 세계 최초로 두 번나 수상했음에도, 언론과 대중의 상업적 관심이 부담스러워 시상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였기에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쿷시는 뻗뻗하게 단상에 올라 준비해온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흔히 생각하는 수상 연설이 아니었다. 감사 인사도 없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나 문학과 예술과 시대에 대한 감동적인 호소도 없었다. 그것은 ‘He and His Man’이라는 제목의 소설 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 소설은 수상 연설을 대신하기에 충분했다. 쿷시는 그런 작가였다. 무엇이든 소설로, 오직 소설로만 말하는 작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거의 전설적인 쿷시가 자신의 삶을 소재로 소설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진실을 사유하는 방식, 진리를 말하는 방식은 오직 소설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것이더라도 말이다.

## “위대한 작가라고요? 존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는 위대한 작가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작은 사람이었어요. 중요하지 않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_본문 중에서

콧시는 결코 대중적인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책들이 널리 팔리지 않았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대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가 쌀쌀맞고 거만한 지식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도 그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실은 그가 그걸 부추겼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_본문 중에서

우울한 친구. 세상은 그를 그렇게 볼 게 틀림없다. 그를 보아주기라도 한다면 말이다. \_본문 중에서

『서머타임』을 통해, 그의 일기와 연인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콧시의 모습은 이렇다. 초라하고 실패한 분위기가 풍기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 책을 쓰고, 눈앞의 대상이 아니라 머릿속의 관념을 사랑하고, 냉정한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면도 갖고 있으며, 잊힌 언어를 공부하고, 베스트셀러는 쓸 줄 모르고, 정치와 국가에 관한 모든 것을 혐오하는 사람. 그리고 언어를 다루는 예술가이자 위대한 작가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위대한 작가.

세계적인 작가 콧시의 삶은 생각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 『청년 시절』에서 자기 영혼의 불꽃을 알아봐줄 연인을 그토록 기다렸지만, 『서머타임』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의 영혼의 불꽃을 알아본 연인은 없었다. 그녀들은 그를 대단한 작가로 여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에게 푹 빠지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에는 ‘모범생’이었지만 꿈을 품고 떠난 영국과 미국에서 실패하고 다시 남아프리카로 돌아온 뒤, 그의 위치는 ‘실직한 지식인’일 뿐이었다.

## 포스트모던시대의 자서전,

### 포스트모던시대의 걸작

나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게 내 얘기가 아니라 존에 관한 얘기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존과 관련된 유일한 얘기, 혹은 내가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일한 얘기는 이것뿐이에요. 즉, 내 삶에 관한 얘기, 그가 내 삶에서 했던 역할에 관한 얘기죠. \_본문 중에서

이건 당신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죠? 당신은 당신 책을 위해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당신의 주인공과 아름답고 이국적인 발레리나 사이의 로맨스에 대해 듣고 싶었겠죠.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맨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너무 많은 진실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당신의 책에는 들어갈 수 없는 너무 많은 진실인지도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_본문 중에서

콧시의 메모와 그에 대한 인터뷰들이 하나하나 모여, 작가 존 콧시의 초상이 완성된다. 다양한 시점과 각도에서 본 이야기들이 서로 맞물리고 부딪치며 그려진 그의 초상은 입체적이다. 또한 잔인할 만큼 적나라하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과 기록을 모으던 전기작가 빈센트는 이런 의문에 봉착한다. 콧시의 메모는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 소설가인 콧시가 그 모든 걸 꾸며냈을 가능성은 없을까? 오래전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인터뷰는 과연 믿을 만한가?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콧시의 죽음, 전기작가 빈센트, 콧시의 사촌 마르코, 그의 연인이었던 줄리아와 아드리아나와 소피, 그리고 직장 동료 마틴. 이 모든 설정과 등장인물은 모두 허구다. 『서머타임』을 쓴 사람은 빈센트가 아니라 콧시 자신이고, 콧시는 영국 유학중에 결혼해 이후 아이 둘을 둔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서머타임』 속 설정과도 맞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내용이 사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작가’ 혹은 ‘냉정한 지식인’ 같은 콧시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물론 그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묘사 중 실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하다.

나는 쿣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전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역사에 맡길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각도에서 본 여러 이야기가 되겠지요. \_본문 중에서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자리에서 존 쿣시에 대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소설 속 인터뷰에서 드러난 쿣시의 모습이 가지각색이었던 것처럼, 독자들의 마음속에 그려진 쿣시의 초상도 다채로울 것이다. 최종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독자들 각자의 최종적인 초상이 더해짐으로써 『서머타임』은 작가와 작품뿐 아니라 작가-작품-독자 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된다. 기존의 형식과 한계를 무너뜨리고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 삶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작품은 가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걸작이라 할 만하다.

## 책 속에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으며 고약하고 굵은 상처를 남기는, 낡고 짜증나는 질문. 자책감. \_본문 11쪽

왜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독해줄 거라는 어렴풋한 희망을 품으며, 종이 위에 뭘 계속 끄적이고 있는 걸까? \_본문 16쪽

체스를 두는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려고 책략을 쓰는 동안, 인간의 목숨은 여전히 소모되고 있다. 소모되고 소진되고 있다. 전쟁에 파괴되는 것이 어느 세대의 운명인 것처럼, 정치에 시달리는 게 지금 세대의 운명인 듯 보인다. \_본문 23쪽

아만인들에게 아이러니는 소금과 같다. 이로 깨물어 순간적인 흥미를 즐길 수도 있지만, 그 흥미가 사라지고 나면 잔인한 사실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다. \_본문 28쪽

나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작가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그건 허용될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_본문 52쪽

만약 당신이 속으로 두 이야기, 즉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내게서 듣고 있는 이야기의 차이가 관점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존에 관한 이야기는 나의 결혼생활에 관한 긴 이야기 속의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걸 책 틀어서 관점을 조작하고 영리하게 편집해, 존과 그의 인생을 거쳐간 여자들 중 하나에 관한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_본문 70쪽

당신은 못겠죠. 이야기의 몸통은 어디에 있나요? 몸통은 없어요. 몸통에 대해 얘기해줄 수 없는 건 그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몸통이 없는 이야기예요. \_본문 81쪽

생각해보세요. 여기 인간관계의 가장 친밀한 영역에서 이어질 수 없거나 순간적으로만, 간헐적으로만 이어질 수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죠? 그는 친밀한 인간적 경험에 관한 보고서, 전문적인 보고서를 쓰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소설은 친밀한 경험에 관한 거잖아요. \_본문 129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내죠. \_본문 130쪽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가혹해도, 진실이 없으면 치유도 있을 수 없어요. \_본문 133쪽

다시는 못 보겠지. 한 번만 살고 다시는 못 사는 거다. 결코, 결코, 결코. \_본문 153쪽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이야기, 너와 나의 이야기도 죽게 될 거라는 게 너무 슬퍼. \_본문 212쪽

우리는 이 불모의 지대에서 뭘 하고 있을까? 만약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이곳을 인간화하려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어째서 따분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 \_본문 219쪽

그 모든 것이, 이 삶이, 이 죽음이, 이 삶 속의 죽음이 끝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_본문 283쪽

난민.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나를 계속 난민이라고 불렀어요.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내가 원하는 전부였을 때 말이죠. \_본문 294쪽

우리 모두가 조금은 절망적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_본문 307쪽

그의 글에 그 주제가 나온다고 해서 그의 삶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너무 순진한 거죠. \_본문 335쪽

우리도 모두 픽셔니어라면 어쩔 건가요?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요? 어째서 내가 당신한테 쿣시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쿣시가 직접 쓴 것보다 더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_본문 351쪽

당신은 기억해야 해요. 당시에는 정치가 어디나 비집고 들어왔다는 걸 말이죠. \_본문 367쪽

그것은 나이들어가는 남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일지 모른다.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것 말이다. \_본문 382쪽

제가 태어난 후로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주세요. \_본문 389쪽

산문은 시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한다. 자기가 다음날에도 살아서 그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자신이 없다면, 산문을 쓰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 \_본문 404쪽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_본문 410쪽

## 차례

메모장 1972~75\_007

줄리아\_029

마르곳\_135

아드리아나\_239

마틴\_317

소피\_341

메모장—날짜가 적히지 않은 부분들\_379

웁긴이의 말\_411

J. M. 쿣시 연보\_423

##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이 책을 읽은 많은 비평가들이 쿣시를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영어권 작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_뉴욕 타임

스 북 리뷰

이 놀라운 작품보다 더 장르를 규정하기 어렵고 원숙하며 도발적인 작품은 지금껏 없었다. 천재적이다. \_북 페이지

엄히고설킨 사건들에서 강렬하고 질주하는 서사를 창조해냄으로써 이야기꾼으로서의 힘을 확실히 보여준다. \_뉴욕 타임스

포스트모던 시대의 걸작. \_뉴욕 포스트

『서머타임』을 읽고 있으면, 이 현대의 거장이 날것 그대로의 인생을 얼마나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는가’에 대해 놀라게 될 것이다.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을 포착하려는 그의 시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_오프라 매거진

쉽지 않지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작품 속의 사실들이 항상 실제 컷시에 대해 알려진 정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관점들의 합은 위대한 작가의 모습과 닮아 있다. \_시애틀 타임스

예술의 한계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자, 우리 시대 거장의 깔끔한 모범. \_보스턴 글로브

우리가 예술작품과 그것을 창작한 작가에 가치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_타임아웃 뉴욕

작가의 정신적 활동을 지금껏 우리가 상상도 못한 깊이로 파헤친다. \_네이션

이 작품으로 컷시의 모든 걸작 리스트가 더욱 풍부해졌다. \_PortlandOregonian.com

지은이 **J. M. 컷시** John Maxwell Coetzee

194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났다. 케이프타운대학을 졸업하고 1965년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주립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8년부터 약 3년 동안 뉴욕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존스홉킨스, 하버드, 스탠퍼드, 시카고 대학에서도 강의했다. 1972년 고국으로 돌아가 케이프타운대학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1년 정년퇴임했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해 애들레이드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1974년 『어둠의 땅』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데뷔한 컷시는 두번째 소설 『나라의 심장부에서』로 남아프리카 최고의 문학상인 CNA 상을 받았고, 『야만인을 기다리며』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마이클 K』와 『추락』으로 한 작가에게 두 번 주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고 부커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에트랑제 페미나 상, 예루살렘상, 아이리스 타임스 국제소설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그리고 2003년 “정교한 구성과 풍부한 대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서구 문명의 도덕적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평과 함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밖의 주요 작품으로 『포』 『철의 시대』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슬로우 맨』 『어느 운 나쁜 해의 일기』, 자전소설 3부작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서머타임』 등이 있고, 다수의 에세이와 연구서를 집필했다.

옮긴이 **왕은철**

전북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 클래리언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에서 각각 영문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문학>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으며 유영번역상, 전속희문학상, 한

국영어영문학회학술상, 생명의신비상, 전북대학교 학술상과 수업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피의 꽃잎들』 『페테르부르크의 대가』 『마이클 K』 『연을 쫓는 아이』 『전쟁 쓰레기』 등 40여 권의 역서가 있으며, 『문학의 거장들』(한국연구재단 우수도서) 『J. M. 쿳시의 대화적 소설』(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애도 예찬』(전숙희문학상) 『타자의 정치학과 문학』 『트라우마와 문학, 그 침묵의 소리들』(생명의신비상, 세종도서 문학나눔도서) 등의 저서가 있다.

- 발행일 2019년 1월 15일
- 판형 128×188, 환양장
- 쪽수 432쪽
- 값 15,800원
- ISBN 978-89-546-5447-0 04840
- 담당 편집 해외문학 1팀 정혜림(031-955-8861, jeanj@munhak.com)